

가을야구 암표, 현장에서 잡는다!

- 문체부와 경찰청, 10월 14일부터 포스트시즌 전 경기에서 암표 현장 거래를 포함해 암표 집중 단속, 팬들의 공정한 관람 기회 보호
- 법 시행 이후 체육 분야에서의 부정 판매 총 9만 건 신고 접수, 중복 제외 4만 7천여 건의 게시물 중 4만여 건 노출 제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이하 문체부)는 10월 14일(수)부터 시작되는 프로야구 포스트시즌을 맞이해 경찰청(청장 대행 김종철), 한국야구위원회 [총재 허구연, 이하 케이비오(KBO)], 구단,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하형주, 이하 체육공단)과 협력해 가을야구 전 경기의 경기 개최 구장과 주변 지역 현장에서 암표를 단속한다. 이는 입장권 수요가 집중되는 가을야구 기간에 부정 판매를 억제하고, 야구팬들의 공정한 관람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문체부는 지난 8월 28일의 개정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과 함께 체육 공단을 스포츠 암표 신고기관으로 지정하고, 국민 신고와 온라인 모니터링을 바탕으로 암표 대응체계를 가동해 왔다. 10월 7일까지 스포츠 분야 부정 판매 신고 총 9만 건을 접수했으며, 중복으로 접수된 건을 제외한 4만 7천여 건 중에 의심 게시물 4만여 건의 노출을 제한했다. 고가·다량 판매 등 부정거래가 의심되는 121명에 대해서는 10월 6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번 포스트시즌에서는 온라인에서만 아니라 현장에서까지 단속하는 등, 암표 대응을 강화한다.

**포스트시즌 전 경기에서 매표소 및 주요 출입구 등 집중 점검,
문체부·경찰·야구계 협업, 현장 적발부터 수사 및 과징금 부과까지 연계**

현장 단속은 10월 14일에 시작되는 가을야구 전 경기일에 해당 경기장과 주변 지역에서 실시한다. 실제 경기 일정에 맞춰 단속 시간·구역·인력 등을 현장 상황에 맞게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경기 시작 전 관람객이 집중되는 시간대에 경기장 주변에서 구매자를 물색하거나 입장권을 다량으로 판매하는 등 부정 판매 의심 행위를 확인하고, 매표소, 주요 출입구, 인근 집결지 등 암표 거래가 우려되는 구역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이번 현장 단속을 위해 문체부, 경찰청과 담당 경찰서, 체육 공단 및 케이비오(KBO)는 연락 체계를 구축해 의심 거래 정보와 신고 내용을 신속히 공유한다. 현장에서 다량 판매 등 암표 거래가 의심되는 사례를 발견하면 즉시 경찰에 전달하고, 거래 정황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 확보를 지원한다. 경기별 단속·신고 결과와 주요 사례도 공유해 이후 경기의 단속 구역과 대응 방식에 반영할 계획이다.

주요 경기 현장 홍보 병행, 팬들의 적극적인 암표 신고 독려

현장 단속과 함께 주요 경기가 열리는 날에는 경기장 외부에서 암표 근절 홍보부스를 운영한다. 홍보부스에서는 관람객에게 암표 신고 방법과 제재 기준 등을 안내하고, 현장에서 접수한 신고는 관계기관에 전달해 단속과 연계한다. 경기장 전광판과 케이비오(KBO)·구단 누리소통망(SNS) 등을 통해서도 암표 근절 홍보콘텐츠를 송출하고 신고 참여를 독려한다. 관람객들이 경기장을 찾는 과정에서 신고 방법과 제재 기준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현장 안내와 온라인 홍보를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암표 의심 사례는 ‘스포츠 및 공연 암표 통합 신고 누리집(www.culture.go.kr/singo)’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국민의 신고는 의심 거래를 파악하고 부정 판매에 대응하는 중요한 기반이며, 신고포상금은 관련 법령에 따른 요건과 절차를 거쳐 지급하게 된다.

최휘영 장관은 “가을야구를 기다려 온 팬들의 관람 기회가 암표상의 부당한 이익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팬들이 공정하게 입장권을 구매하고 경기를 즐길 수 있도록 경찰과 케이비오(KBO)·구단 및 체육공단과 긴밀히 협력해 온라인에서부터 경기장 현장에서까지 암표 거래에 엄정히 대응하고 후속 조치에 힘쓸 것”이라며 스포츠 팬들도 암표 의심 사례를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담당 부서	체육국 스포츠산업과	책임자	과장	이동준 (044-203-3151)
		담당자	사무관	박효필 (044-203-3153)